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 ~ 12/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8	괴로운 어디에서 오는가	정영익	휴
4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9	비밀수록 가득하네	정독	샘앤파커스
5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10	어린이가 묻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백만백담	천명일	지혜의나무



“무소유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조오현 지음
강행원 그림
문학의 문학 펴냄
1만3500원



현대인의 당면 문제 해답 제시
韓中日 선사들 일화도 소개
깨달음 단상 20여편 時도 수록



책속에 들어있는 강행원 작가의 선화 '겨울선사'. 선목의 향기가 느껴진다.

“나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소유란 여차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질적 수단 없이 인간의 생활은 도저히 영위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옷을 입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서리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자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악산 신홍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오랜만에 다시 그동안 깨달음의 조각들을 한

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 오현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담백한 언어로 이야기 한다. <벽암록>이나 <무문관> 같은 선종 최고의 글에

서 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따로 간추려 신선한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삶의 핵심을 파고드는 어록들로 버려졌음도 이끌어내고 있는 <선문선답>과 진솔한 사람 사람 냄새 가득한 '이

아기가 있는 시' 등 주옥 같은 글들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다. 평범한 일상에 진실과 행복의 답이 가득하다는 오현 스님의 소박한 마음과 감로법문이 진실과 행복에 목마른 현대인들에게 한 잔의 담백한 차처럼

다가온다. 오현 스님의 글은 고집스러운 정도로 삶의 근본 문제에 치중한다. 이는 열댓살 때부터 성인들의 말을 전하는 훈장 선생처럼 고답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글 하나하나가 일관되게 삶의 근본에 질문을 던진다. 예를들면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읽을 때만 위로가 되는 단발성 효과의 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오현 스님의 글이 현실의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읽으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 지는 구절들이 많다.

가령 “자기는 남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조금만 덜 주어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미소요, 조건 없는 용서요,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라는 가르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스님의 글로써 들으니 더욱더 공감 이 간다.

스님은 책 중간에 달마, 승찬, 백장회화, 서당 지장 등 중국의 선사들을 비롯해 원호

대사, 광덕화상, 통효법일, 동산혜일 등 한국 선사들, 그리고 다루안, 구도, 테스겐 등 일본선사들의 일화 등도 정리해 실었다. 특히 운문선사가 남긴 '매일매일이 참 좋은 날이구나(日日是好日)'라는 말과 원호대사의 '반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와 같은 법문은 다시 들어도 가슴에 단박에 새겨지는 말들이다.

책 말미에는 시조시인이기도 한 스님의 시 20여편이 실려있다. “물빛 님은 산승이요 산빛 님은 절입니다/맑은 꿈 그 골 깊이 잠겨드는 심삼입니다/부연 끝 아픈 인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럼 고즈넉한 겨울 산사를 선적으로 표현한 시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책장 사이사이에 삽입된 선화가 강행원 작가의 그림도 책을 읽는 감칠맛을 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한다. 김주일 기자

‘一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원호 찬술 | 오형근 번역 | 대승 펴냄/5만원



대승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제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일심이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승기신론소>는 수행을 통해 일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묶은 <대승기신론소병별기>에 중도사상과 화쟁사상이 담겨져 있어 걸림없이 자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한 오형근 박사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저술이다. 원래 <대승기신론소>는 원호대사께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명저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불교학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잘 편찬된 저술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저술이다.

<대승기신론소>의 내용은 논술을 저술하게 된 인연관계를 비롯해 대승의 뜻을 세운 것, 대승의 의미와 일심의 진리 등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 신심을 갖고 대승보살들이 수행하는 것, 수행하면 이익이 있다고 권하는 것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소>는 한마디로 대승적인 신심을 일으키는 책이다. 그 신심의 대상은 인간의 본성인 일심과 진여심을 믿게 하며, 일심은 곧 대승체임을 깨닫게 하

일심에는 본각의 성품 지니고 있어
원호 스님 대승선 명쾌히 해설

는 것이다. 여기서 대승심은 지공무사의 대승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간의 일심에는 본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본각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 본각의 성품에 의해 모든 지혜가 생겨나고 중생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마음안에서 번뇌를 떨쳐내는 진여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진여현습'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혼수를 설명해 인간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논리는 오직 원호대사만이 설명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인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무명을 일으켜서 번뇌가 형성되는 과정과 이 번뇌들이 다시 정화되는 과정들을 명쾌히 설명해 주고 있다. 원호대사는 수행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정확히 알아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원호대사는 또한 이 책을 통해 일심에 대한 신심을 갖고 선수행 등 육바라밀을 수행해 열반과 보리를 깨달는 수행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수행론에서 인도의 대승선을 도입해 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수행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결가부좌 방법 △선정되는 9가지 법 △진여삼매 닦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진여삼매에 도달하면 모든 망념과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진여가 반야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호대사는 <대승기신론소>의 진여삼매와 <금강삼매경론>의 금강삼매와 함께 최상의 선사상을 '일미관행'이라 칭하며, 이 선수행이야말로 최상의 대승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책으로 만나는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

길위에서

이창재 지음 | 북라이프 펴냄 | 1만4천원



1년에 두 번만 문이 열리는 사찰이 있다. 금남(禁男)의 공간이 자 급속(禁俗)의 공간. 비구니 스님들만 수행하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절 백홍암이다. 이창재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며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큰스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불호령뿐이었다.

수많은 방문과 설득 끝에 간신히 문이 열린 백홍암에서 그는 300일 간 머물며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으며 수행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갔다.

물론 그 기나긴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쫓겨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때론 스님들의 냉담함과 일반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환경을 견뎌내야 했다. 그렇게 그

만의 수행을 거듭한 결과 비로소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는 완성됐고, 백홍암 속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과정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길 위에서'는 2013년 다큐멘터리 영화 1위, 대한불교 조계종 추천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로 뽑혔고, 불교계는 물론 영화평론가와 관객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기억되는 '길 위에서'를 오롯이 담

외부차단된 '백홍암' 스님들 수행담
시간상 편집된 뒷 이야기도 실어

아낸 이 책은 오랜 기간 촬영 했음에도 시간상 제약으로 편집될 수밖에 없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 따뜻하고, 보다 여유 있는 호흡으로 전한다. '수행 공간'이라는 특성상 외부인들에게 철저히 비공개 된 백홍암의 숨은 이야기부터 한 여인이 출가를 결심하고 스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때론 말간 웃음과 함께, 때론 가슴 먹먹한 울음과 함께 펼쳐진다.

산사를 깨우는 새벽 3시의 목탁 소리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스님들의 예불과 참선 과정, 지리산 들레길을 따라 만행을 떠나는 모습, 작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하는 무문관에서의 삶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극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밥하고 청소하고 김장하는 일, 가을에 소풍을 떠나거나 새해가 되면 주변 절에 인사를 하러 가는 모습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 웃고 우는 스님들의 모습은 막연히 비구니 스님은 기구한 운명, 남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거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일깨워준다.

저자는 스님들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백홍암 스님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는 선원장 영운 스님과 만남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 있다. 19살에 출가해 3년 간 매일 천 배씩 모두 백만 배의 절을 울리며 수행을 시작했다는 영운 스님,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젊은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내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스님의 모습은 수행자의 길과 삶의 회환에 대해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간

대승불교를 현하게 알수있는 원호스님의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오형근 박사(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원장)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원호소는 세계적인 명저로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30쪽 | 가격 50,000원

돈황굴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 원호소 필사본은 현재도 영국 대영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의 본체인 일심(一心)과 그 작용인 진여문, 생멸문을 깊이 설명하여 인성(人性)을 계발하고, 일심(一心)에 이르는 선수행(禪修行)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 판매처 : 교보문고, 조계사 앞 불교전문서점
▶ 보급처 : 도서출판 대승(02-2264-7120)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사비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저자는: 석호 A5(145x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계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보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